

웅진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 용인술

첫째 아들은 ‘영업·마케팅’



웅진에버스카이
윤형덕 대표

웅진그룹 창업주인 윤석금 회장이 큰 아들은 ‘영업·마케팅’으로, 둘째 아들은 ‘기획’으로 차별화하며 2세 경영 승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윤 회장이 1980년 당시 7명의 직원과 함께 세운 웅진씽크빅을 모태로 한 웅진 그룹은 서른살이 갓 넘은 2010년대 초반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큰 성장통을 겪었다. 그 후 윤 회장은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고, 울퉁불퉁한 정수기 등 생활가전방 문판매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갈 두 아들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펴낸 자신의 두 번째 자서전 ‘사람의 힘’에서 “나만큼 사람의 힘을 절실히 체감해온 사람도 없을 것이다. 웅진의 근간이 되어온 세일즈도, 슬한 위기에서 웅진을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사람의 힘이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에게 받았던 긍정과 희망을 이젠 두 자식에게서도 찾고 있는 것이다.

9일 웅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업운영총괄 담당으로 윤새봄 전무를 선임했다. 윤 전무는 직전까지 웅진씽크빅 대표를 역임했다. 윤 전무는 윤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윤 회장이 지주사인 웅진에서 교육·출판, 생활가전, 레저 등 계열사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둘째에게 맡긴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전무는 웅진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웅진 기획조정실장 등 아버지 회사에서 주로 전략·기획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윤 전무가 웅진씽크빅에서 지주사로 넘어오면서 법무, 세무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총괄을 하게되면서 그룹의 큰 그림을 그리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동생인 윤 전무가 형인 윤형덕 웅진에버스카이 대표보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윤형덕 대표, 해외시장사 사업 이끌어
윤새봄 전무, 계열사 사업총괄 담당

후계구도에서 앞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이는 77년생인 윤 대표가 동생인 윤 전무보다 두 살 많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식들에 대한 윤 회장의 용병술이 돋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첫째 아들인 윤 대표가 맡고 있는 웅진에버스카이는 터키에 진출해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무역회사다. 윤 회장은 이 그룹이 위기를 맞으면서 품에 있던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뒤 국내에서 정수기 사업이 여의치 않자 큰 아들을 통해 터키에서 가능성을 엿봤다. 코웨이 매각 후 약속했던 겸업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올해 바로 정수기 등 방문판매사업에 뛰어

둘째 아들은 ‘전략·기획’



웅진 사업운영총괄
윤새봄 전무

든 것도 그동안 터키에서의 성과 등을 녹인 결과다.

미국 워싱턴대를 졸업한 윤 대표는 웅진코웨이 시절 경영기획실장을 맡으면서 국내 1위의 방문판매기업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또 웅진 계열사인 웅진투투럽도 총괄하고 있다. 투투럽은 ‘더말로지카’ 등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한편에서 보면 윤 회장이 첫째 아들에게는 변방의 사업을, 둘째 아들에게는 그룹의 핵심 사업을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윤 대표에게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무역 노하우, 영업감각을, 그리고 윤 전무에게는 기획·재무·전략 관련 업무를 두루 쌓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형인 윤 대표가 바깥살림을, 동생인 윤 전무는 안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윤 회장의 절묘한 경영 수업 전략이 녹아 있는 셈이다.

지주사 지분은 형이 12.51%로 동생(12.48%)보다 다소 많다. 다만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지분은 형과 동생이 각각 2.84%, 0.23%로 같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사업 총괄은 당장

동생이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룹내 지분은 형이 많은 시점에서 승계 구도상 누가 우위를 점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윤 회장의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두 아들도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 웅진이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은 서울 종로에 있는 그룹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 웅진씽크빅, 웅진렌탈 등 핵심 계열사 업무를 챙기면서 두 아들의 ‘경영 멘토’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교원그룹 ‘엄마·아빠 회사 체험캠프’
교원그룹은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엄마·아빠 회사 체험캠프’를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도고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선 부모의 역할 이해, 아이와 마음 나누는 방법, 감정 코칭 등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부모가 강의를 듣는동안 부모님을 생각하며 편지를 준비했다. 저녁시간에는 부모들이 미리 준비한 영상편지와 아이들의 편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

네이버랩스유럽, 성공적 인공지능 학술대회

프랑스서 열린 ‘PAISS 2018’ 개최

네이버가 지난해 6월 인수한 프랑스 소재 기술개발연구소 네이버랩스유럽이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린 인공지능 학술대회 ‘PAISS 2018(패스 2018)’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는 지난 2010년 컴퓨터 비전(시각) 연구 분야의 기술 공유로 시작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 학술대회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을 이번이 프랑스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부설 그르노블 알프스연구소와 네이버랩스유럽이 공동 주관해 부활시켰다.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44개국에서 200명의 청중이 참여했으며 총 15개의 강연과 3개

의 실습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최고의 AI 석학 중 하나인 안 르륀 뉴욕대 교수 겸 페이스북 AI 연구소장을 비롯해 기계번역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 구글 답마인드 연구센터장 레미 무노 선임연구원, 3D 비전 분야의 석학인 런던대학교 루드트 아가피토 교수, 카네기멜론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소장 마셜 허버트 교수 등 학계와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AI 연구자들이 참여해 자신의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네이버랩스유럽에서도 즐리앙 페레즈와 디앙 라르루스 연구원이 참여해 머신러닝(문자기반의 답러닝 학습 기술) 분야와 컴퓨터 비전(이미지 인식 및 검색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구서윤 기자

인간 수준 AI... 충전없는 드론...

과기정통부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수립

나노기술 6대 분야 성장 반영
‘미래기술 30’ 실현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나노기술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10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18~2027)’를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경쟁력은 2001년 선진국의 25% 수준에서 4위권으로 성장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노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나노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는 그동안 나노분야 연구방향 설정의 지표가 된 기존 나노기술 6대 분야 사전적 기술지도를 최근 기술 성장을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우선적으로 확보할 전략적 기술지도와 이를 실현할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전략적 기술지도는 미래사회 3대 목표인 편리하고 즐거운 삶,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으로 정했다. 또 이들 목표에 대해 ‘나노기술로 구현하는 미래기술 30’을 선정하고 ‘미래기술 30’ 실현에 필요한 상세 나노기

술 로드맵을 마련했다.

미래기술 30에는 ‘개인휴대용 인간 두뇌 수준 인공지능’, ‘속도 무제한 통신 환경’, 충전 없이 날 수 있는 드론, ‘인공나뭇잎 광합성’,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자동차’, ‘거부반응 없는 인공장기’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10년의 나노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1기(2008~2017), 제2기(2014~2025)에 이어 세번째로 수립됐으며 지난달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구서윤 기자 yun2514@

중견기업 절반 “‘높은 상속세’가 승계 막아”

중견기업의 절반이 승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9일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47.2%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지목했다. 이외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 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지적됐다.

중견련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라며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동력이 아닌 기업 포기 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승계 이후 10년간 해당 업종을 유지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을 계속 고용해야 하며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할 때 우 까다롭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37.6%에서 고령의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기업승계 원칙,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곳이 12.8%에 불과했고, 87.2%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휴온스

러 146억 규모 공급 계약

휴온스는 러시아 현지 에스테틱 전문기업인 ‘인스티튜트 오브 뷰티 피지’(Institute of Beauty FIJIE)와 6년간 약 146억 원 규모의 휴톡스주(HU-014)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휴톡스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얼굴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2016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받아 해외 일부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품목허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휴온스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